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1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136)	봉헌 (129)	성체 (175)	파견 (134)
---------	----------	----------	----------	----------

제1독서 | 사도 10,34-37-43
 화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제2독서 | 콜로 3,1-4<또는 1코린 5,6-8>
부 속 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환호송 |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
 셧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복 음 | 요한 20,1-9 <또는 마르 16,1-7 또는 루카 24,13-35>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3/4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11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3/18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3/25	유 요한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사순 회생 예물 : \$150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백합꽃 봉헌
	\$182	\$	\$	\$2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3/31	유 요한/ 유 마리아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4/7	김 요아킴/ 고 안나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4/14	홍 마르코/ 홍 아네스
3/1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21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 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다음 성체조배는 4 월 5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회의는 사정상 셋째 주(4 월 15 일 7 시)에 하게 됩니다.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다음 성체조배는 4 월 5 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문의:박바오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금요일 오후 7 시 (문의: 유요한)

다음 성경은 마르코복음 15,16 장을 필사하여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성당 교리실 입니다.

소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4 월 15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봄 하마йка 축제 4 월 8 일(둘째 주일)

한국 공동체에서는 불고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하마йка 라폴티켓은 총무님께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 드립니다

미사 후 아침 식사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순 회생 예물 봉헌 사순 기간에 희생한 예물을 봉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이삭

나의 부활과 구원

이상호 비오 -kBS 아나운서-

저희 둘째 아이는 아픕니다. 생후 육 개월 되던 해 2월, 제주도 여행 갔다 숙소에서 아이가 갑자기 떨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추워서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경련은 주기적으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난치성 질환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밤낮으로 우는 아내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아이가 어리니까 금방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에 처음에만 놀라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보니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참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너무 하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다섯 살이 된 둘째 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많이 늦은 편입니다. 다행히 아내는 그동안 아이가 아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스스로 많이 다독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너진 건 저였습니다. 회사 파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아침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올림픽대로로 접어든 순간 갑자기 숨이 막혀 왔습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시작됐습니다. 겨우 차를 몰아 출근하긴 했지만 그 후로 몇 달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잠은 물론 잘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가끔 머리를 쳐들어 건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발적 발작성

불안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공황장애였습니다. 둘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다락방에 올라가 소리치며 울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잔을 제 앞에서 거두어가시라고. 그렇게 울다가 원망하는 것도 지쳐가던 체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비오야 있는 그대로 아이를 바라봐 주고 사랑해주면 좋겠구나.' 그렇습니다. 내 기대와 내 계획대로 자라주어야 하는 아이의 모습을 저는 한번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선과 마음을 느꼈을 둘째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를 놓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저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낀 순간 부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 나를 움아매고 있는 욕망과 판단과 계획과 기대들을 내려놓았을 때, 내게 닥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애쓸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의 사랑은 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서울주보 에서-